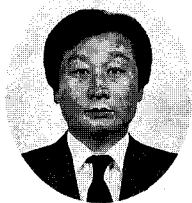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취재기—



李東勳
(내외경제 사회부 차장)

세계 3대미항중 자연경관이 제일이라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과 삼바의 도시. 눈처럼 흰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해변에 둘러쌓인 리우. 커피와 열대식품, 각종 희귀종의 자연석과 보석.

리우를 상징하는 말들은 각각각 색이며 경우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 온 표현들이라 생각되었다.

이곳 리우에서 금세기 최대의 국제회의라고 하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리우환경회의)가 지난 6월3일부터 14일간 열렸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를 놓고 1백75개국 3만여명이 참가하는 리우환경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 리우의 갈레앙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6월2일 오전 8시.

공항에 도착하자 초겨울이라는 리우는 섭씨 34-36도를 오르내리는 찌는듯한 무더위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대서양에 둘러쌓인 리우는 공항을 출발. 푼당섬과 대륙을 잇는 갈레앙다리를 지나 플라멩고공원 요트로 유명한 U字형의 보타포고해안을 거쳐 코파카바나 숙소까지 오는 동안 리우의 자연경관에 매혹되기 충분했다.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표고7백30m의 코르코바도언덕 정상에서 양팔을 벌리고 시내를 굽어보는 예수상과 과나바라만에 접해있는 원추형의 바위산 페데아수카르는 마치 거북이가 대서양을 향해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인상적이었다.

예수상은 1931년 브라질 독립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는데, 높이30m 두팔의 길이가 28m로 내부에는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다.

이 예수상은 시내 어느곳에서도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가 지면 조명시설이 잘되어 마치 예수가 재림하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예수상을 보면서 브라질국민의 90%이상이 카톨릭신자라는 안내원의 설명이 이해가 갔다.

천혜의 자연경관 못지않게 인구 6백여 만명을 수용하고 있는 리우 시내에는 80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건축양식도 이미 19세기 부터 트로피컬리아라고 해서 서구와 브라질풍의 색채가 가미된 네오클래식 양식의 건축물은 리우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중심가인 센트로는 고층빌딩이 도로와 함께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시립극장을 비롯하여 국립미술

관과 박물관 등 중후한 석조건물이 있고 북쪽에는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최대의 마라카낭축구장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또 센트로를 가로 지르고 있는 브랑크대로는 10여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카니발퍼레이드 대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자연환경과 도시계획에 의해 잘가꾸어진 세계굴지의 관광도시 리우도 최근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리우와 함께 남미 최대의 상업 도시인 상파울은 알코올자동차에서 나오는 달착지근 하면서 매스꺼운 매연과 빌딩, 공장 등에서 내뿜는 매연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또 리우의 국제공항 주변에 있는 과나바라만과 보타포고해안으로 내려오는 지천은 리우시민들이 배출하는 폐수로 시꺼멓게 오염되어 가고 있었다.

남미 최대의 아마존강변에 있는 열대림은 벌채로인해 사막화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홍수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겪어야 하는 경제난과 함께 치안문제 또한 위협수위에 달한 것 같았다.

3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리우환경회의를 무사히 치루기 위해 무장경찰 및 군 등 1만2천여명을 동원, 비상경계를 펴고 있었지만 리우는 폭력강도, 치기배 등 강력사건은 연일 수 십건씩 발생했다.

또 리우에 도착하던날 1달러당 2천8백프루제이로 환전했던 브라질 화폐는 귀국길에 오르던 6월15



남미 최대의 아마존강변에 있는 열대림은 벌채로 인해 사막화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홍수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일에는 3천5백프루제이로 2주동안 무려 25%나 뛰어오르고 있었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였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날이면 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한달분 생필품을 구입하는게 가장 큰 일거리라고 한다.

10년전만해도 10%이상의 경제성장을 누리왔던 브라질의 경제였다고 한다.

「정치가 부패해서 치안부서와 경제가 만신창이 되었지요. 그러나 모든게 우리 탓입니다.」 국민이 자각을 못해 이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는 리우의 토박이 앙드레

(33)의 말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강석, 커피, 설탕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나라의 40배나 되는 세계5위의 광대한 국토. 중남미 최대의 나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자랑했던 브라질이었으니 오늘의 브라질을 걱정해서 나온 말인 것 같았다.

리우를 출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니아가라폭포보다 더 길고 웅장하다는 이과수폭포와 파라나강의 세계제일이라는 이타이프발전소(댐길이 8km 매시간 1천3백만 kw발전)를 방문했다.

이과수 시내에서 승용차편으로 각각 동서로 15-20분대에 위치한 이과수폭포와 이타이프발전소를 보는 순간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과제를 놓고 세계가 떠들썩했던 리우회의가 떠올랐다.

이과수폭포는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여 자연의 극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보전하고 있는 반면 이타이프발전소는 인간이 자연환경을이용, 개발해 놓은 최고의 건물로서 과학문명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